

2010년 봄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30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솔람미의 예표
(1)

성경: 아 1:1-4, 3:9-10, 4:12-16, 6:13

I. ‘솔람미’ 라는 이름은 ‘솔로몬’ 의 여성형이다—아 6:13.

- A. 솔로몬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영’ 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의 왕비인 솔람미는 영광 안에서 다스리고 그분을 누리는 ‘신부’ 인 부활 안의 교회를 예표한다—계 22:17 상, 눅 24:26, 요 7:37-39, 시 45:8-15.
- B. 어린양의 결혼 잔치는 장래에 있을 것이지만,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우리의 거듭나고 연합된 영(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그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신성한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의 결혼의 연결)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요 3:6, 15-16, 29-30, 고전 6:17.
- C.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영’, 즉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의 남편의 두 번째 출생이었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그리스도의 거듭난 지체들로 구성된 ‘신부’ 의 출생, 즉 거듭남이었다—롬 1:3-4, 8:29, 벧전 1:3, 계 22:17 상, 비교 12:5.
- D. 아가서에 있는 로맨스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그분의 완결된 신부, 즉 솔로몬의 복사판과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그분의 신부 솔람미가 되기 위해 통과하는 과정들을 묘사한다.

II.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아 3:9-10.

- A.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움직이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연,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그릇, 그리스도의 탈 것, 그리스도의 ‘자동차’ 가 된다—비교 고후 2:12-17.
- B.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어 우리의 바깥 구조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인성이 되고 우리의 안의 장식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아 3:9-10.
 - 1.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한 연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 솔로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요 21:15-17, 시 110:3.
 - 2. 우리의 속 존재는 ‘사랑이 입혀져야’ 한다 (아 3:10).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성이신 그리스도를 갖는 영역 안에 우리를 지켜, 그분의 사랑의 강권(고후 5:14) 안에서 우리의 인성을 보호할 것이다.
- C. 우리가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은 기둥),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금 바닥), 우리 속에서 다스리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자색 깔개)으로 개축된다—아 3:10, 비교 롬 8:28-29, 고후 4:16-18.

III.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샘이요 봉한 원천이로구나...너는 동산의 원천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 4:12, 15, 비교 고전 3:9, 창 2:15.

- A. 여기에서 잠근 동산과 덮은 샘과 봉한 원천은 그리스도의 은밀한 누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추구하는 믿는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위해 은밀하고 감춰지고 덮여지고 봉해진 것이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 B. 동산의 원천과 생명 주시는 영이라는 생수의 우물은 부활과 승천의 생명(레바논)에서부터 오는 시내이다. 원천과 샘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기는 이들에게서부터 흐르는 시내이다—요 7:37-39.
- C. 아버지 하나님은 원천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물이시고, 영 하나님은 흐르는 시내로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다—4:14 하.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심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아 1:12-14, 4:12-14, 5:1.
 -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한 후 그분께 속했지만, 주님을 우리의 동산으로 이끄는 것은 지속적인 헌신이다—4:16 하, 5:1, 비교 시 110:3, 레 6:12.
 - 2. 체험있는 믿는이들은 나중의 헌신이 처음의 헌신보다 더 어렵지만,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오직 이러한 헌신만이 주님께 그분의 수고의 열매를 드릴 것이다—비교 겔 47:1-5.
- E. “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아 4:16 상.
 - 1. 북풍(차갑고, 모질고, 매서운)과 남풍(따뜻하고, 부드럽고, 신선하게 하는)은 믿는이들이 주님을 충족함의 비결로 누리도록 주님께서 믿는이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다른 환경이다—빌 4:11-13, 6-7.
 -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모든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다.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으로 채워지는 한, 어떤 환경에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1:19-21 상.

IV.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는 승리하는 술람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그녀의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아 6:13.

- A. 술람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진영 혹은 두 군대(히브리어로 ‘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과 같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그 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를 ‘ 두 군대’ 로 나누었다—13 절, 창 32:1-10.
- B. 두 군대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넉넉히 이기고, ‘ 뛰어난 승리를 거둔다’ 는 강한 증거이다—롬 8:37, 12:5, 신 32:30.
- C.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이들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원하신다—비교 고전 1:26-28, 고후 12:9-10, 13:3-5.
- D.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사람들, 땅은 머리(아 1:11)로 상징된,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 구슬깨미가 있는 목(10 절)으로 상징된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 E. 이기는 이들이 되기에 합당한 이들로 여겨지는 이들은 약하고 극도로 난감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일 것이다—엡 3:8, 계 3:8, 갈 2:20.
- F. 어떻게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공훈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공훈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롬 9:16, 21-23, 아 8:5-6.

V.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세 부분으로 된 술람미가 되는 길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아 1:1-4.

- A. ‘ 나를 끌어당겨다오’ 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리킨다—4 상.

1.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언저리에 표현된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살고 행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했다—고후 2:10.
 2.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능력과 비결로 취하며 그리스도와의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접촉 안에 살았다—빌 1:19-21 상, 2:5-11, 3:8-14, 4:4-6, 11-13.
- B.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는 주님과 애정어린 관계를 가리킨다—아 1:2 상.
1. 바울은 하나님의 깊이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했다—엡 6:24, 고전 2:9-10.
 2.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사람들, 즉 저주를 받도록 분리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9 절, 비교 16:22.
 3. 바울은 더이상 자신을 향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다—고후 5:14-15.
- C. “왕이 나를 그의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는 주님과 사적인 관계를 가리킨다—아 1:4 상, 비교 시 27:5, 31:20, 83:3, 91:1, 110:3.
1.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니” —막 1:35.
 2.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마 6:6.
 3.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14:22-23.
- D. ‘그의 침궁’ 은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리킨다—아 1:4 상.
1.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노래 중의 노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침궁인 지성소이다—아 1:1-2, 고전 15:45 하, 롬 8:16, 딤후 4:22, 비교 고후 5:16-17.
 2.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12:2)으로서, 그의 영 안에서(2:13)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기름 붓는 영, 도장 찍는 영(1:21-22), 쓰는 영(3:3), 생명 주시는 영(6 절), 사역하시는 영(v. 8), 자유케 하시는 영(17 절), 변화시키시는 영(18 절), 전달하시는 영(13:14)을 누린 사람이었다.
 3.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알고, 사용하고, 관심하고, 훈련해야 한다—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비교 유 19.